

전남지역 학교 체육시설 임대료 천차만별

동일 행사·같은 시간대·종목별 사용료 달라 전남교육청·전남도 공동예산 마련 지원해야

전남 도내 초·중·고교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일선 학교의 체육시설 사용요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행사와 시간임대에도 불구하고 임대비용이 최대 10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전남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일선 학교장이 시설 개방 여부와 사용료, 추가비용 징수 권한을 갖고 있다.

같은 행사로 4시간 이상 학교시설을 사용한 경우 징수액이 순천 A고교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하루 2만원인 반면, 고흥 A초등학교는 20만원(추가비용 포함)을 징수해 10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 동일 종목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축구의 경우 신안 A고교는 운동장 1일 사용료가 1만9924원인 반면, 해남 A중학교는 12만원으로 6배 가량 차이가 났다.

또 여수 A초등학교는 체육관 1일 사용료가 배구클럽은 4369원인 반면, 배드민턴클럽은 5만원으로, 동일학교에서 종목별로 징수하는 사용료도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학교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며 "시설 사용료가 제각각인 이유로 학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매년 장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학교장에 따라 큰 차이의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체육클럽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남 생활체육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광주시·광주교육청처럼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가 공동 예산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환기자

나주 저수지에 차량 빠져...1명 숨져

18일 오후 5시14분께 전남 나주시 오량동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져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차량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 해상 암초 걸린 선박서 선장 등 2명 구조

전남 완도해상에서 암초에 걸린 선박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8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완도군 금일도 일직항 인근 해상에서 4.22t급 선박이 암초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박에는 선장 등 2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선박은 조업 중에 선장의 부주의로 암초에 걸려 좌초됐으며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은 에어밴트·연료밸브 봉쇄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할 예정이다.

나주 노안터널서 9중 교통사고...7명 부상

18일 오후 2시35분께 전남 나주시 노안면 무안광주고속도로 노안터널(무안-광주)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차량 화재 등 2차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터널 내 차량 정체를 인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순천소방, 재난대비 공동주택 특별 소방훈련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최근 서면 소재 용당 대주피오아파트에서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연결송수구 설비 방수 훈련 및 고가사다리차 진입·전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공동주택 화재를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출동 소방력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된 순천시·구례군 공동주택 총 16개소에서 실시 됐다는 것.

용당 대주피오아파트에서 진행된 첫날 훈련에서는 △단지 내 연결송수구 설비 위치 및 펌프차를 이용하여 작동 이상 유무 확인 △비상용 엘리베이터, 피난계단을 이용한 소방력 진입 훈련 △고가 사다리차 전계 훈련 등으로 체계적인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과 소화활동설비 활용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홍천서 등산 나섰던 60대 숨진 채 발견

18일 오후 9시39분께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야산에서 등산에 나섰던 A(6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 가족들에게 "18일 오후까지 돌아오겠다"며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18일 오후 8시7분께 경찰과 합동 수색에 돌입해 휴대폰 GPS 추적으로 1시간30여분 만에 A씨를 찾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고 두부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실족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18일 낮 12시께 고성군 간성읍 흘리 마산봉에서 등산에 나선 B(39)씨가 연락이 두절돼 수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9일 2차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대병원 교수 부인 특혜진료...징계·병실 사용료 2배 부과”

운영덕 의원 “전남대 감사자료서 총 45차례 확인”

전남대학교병원 교수의 부인이 특혜 진료를 받아 정직과 부당 병실 사용료 부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운영덕 의원은(광주 동남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 병

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 A교수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권한을 남용한 부정정착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기

록을 누락해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병실을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436만원의 입원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과금(약 872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며 “A교수는 불복해 교

원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최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경감됐고 징계부과금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승호기자

광주·전남 사망 원인...‘암·심장질환’ 순 높아

고의적 자해 6.9%

광주·전남 지역민의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9년 광주·전남 지역민 사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연령 표준화 사망률-광주 318.5

명·전남 327.3명)의 사망 원인을 보면, 광주는 암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장질환(8.6%), 폐렴(7.9%), 고의적 자해(6.9%), 뇌혈관 질환(6.4%) 순으로 높았다.

전남의 경우도 사망원인은 암이 2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심장질환(8.6%), 뇌혈관 질환(7.1%), 고의적 자해(6.1%), 폐렴

(5.9%) 순이었다.

광주·전남 지역 사망자 수는 광주 북구(2431명)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도군(416.6명), 신안군(40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전남이 1만6787명으로 광주보다 많았고, 연령 표준화 사망률도 전남이 327.3명으로

광주보다 높았다.

전년(2018년) 대비 증감률은 전남(-2.5%), 광주(-1.9%) 순으로 감소했다.

80세 이상 사망자와 40세 미만 사망자 수는 전남이 각각 8919명, 338명으로 역시 광주보다 많았다.

연령별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광주는 80세 이상 47.0%, 60~79세 35.5%, 40~59세 14.1%, 40세 미만 3.7%였다.

전남은 80세 이상 53.1%, 60~79세 35.1%, 40~59세 10.0%, 40세 미만 1.7%였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